

# “끝이 없는 배움 더 정진하길”

## 봉은사 불교대학 제48기 졸업식 봉행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활발한 신행생활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2월 7일 봉은사 법당에서 봉은사불교대학 제 48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불교대학장 주지 명진 스님, 부주지 진화 스님, 총무국장 원목 스님, 교무국장 법성 스님, 포교국장 무성 스님, 사회국장 맥산 스님, 교육국장 광명 스님 등 봉은사 사중 스님과 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270여 졸업생의 활발한 신행생활을 격려했다. 명진 스님은 축사에서 “배움에는

끝이 없기에, 이날 졸업하는 불자들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끝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구도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봉은사 신도회는 2월 9일 양평 KOBACO 연수원에서 신도회 상반기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신도회 연수에는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250여 신도회 임원이 참석해 리더십 강연 등을 경험했다. 노덕현 기자

# 설맞이 자비 나눔 펼쳐

## 조계사, 용주사, 줌도리쌀 등 쌀나눔기 행사

경인년 설을 맞아 사찰과 기관들이 이웃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2월 11일 ‘경인년 설맞이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종로구 이웃돕기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에서 조계사는 종로구 거주 소외계층 600가구에 20Kg 쌀 600포대를 지원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현백)는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쌀 400포대 전달식 서울 용담동 비전트레이닝센터 마당에서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맥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우)가 12년째 펼치고 있는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통해 모은 쌀은 맥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4개 참여단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공회푸드뱅크, 부스리기사랑나눔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지역화원단체의 사시시설에



11일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종로지역 소외계층 600가구에 20Kg쌀 600포대를 전달했다.

있는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결식아동 및 청소년 등 개인에 나누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선 10일 수원 용주사주지 혜철 스님을 선임해 지역 저소득 100가구에 라면, 쌀 등 120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전달했고, 화성

관내 51사단에 북부종인 어려운 전우 33명에게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화성시 안양중학교 졸업생 6명에게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나 기자

# 부처님 원음으로 가르칠 터

## 원음종 창종 및 양평 순일선원 개원법회

대한불교원음종(창종 순일)은 2월 7일 양평 순일선원에서 창종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 순일 스님(사진)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정법에 목말라하고 있다.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정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불사의 일환으로 원음종을 창종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종 기념법회에서 순일 스님은 이타행과 삼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탐·진·치 삼독은 ‘집착’과 ‘저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꿈’에 담지 못한 거짓된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을 통해) 삼매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화와 탐욕이 불행의 원인”이라며 “당장 큰 화란 내지 않아도 누구나 삶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집착과 저항만 없다면 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님은 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참회를 제시했다.

순일 스님은 “화를 그냥 참으면 병이 되지만, 참회를 한다면 화를 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며 “참회를 통해 남을 돕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스님은 “안으로 삼매를 잡고 밖으로 봉사하는 것은 (깨달지 못한 채) 꿈속에서만 잠자는 방법”이라면

서 수행하는 삶을 거듭 강조했다.

순일 스님은 ‘탐욕이 없으면 마음의 동요가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마음의 왕래가 없다. 왕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생사를 여의다. 생사를 여의면 해탈의 길을 얻고, 모두 알고 보게 된다’는 <우타나경> 구절을 소개하며 법문을 마쳤다.

한편, 순일선원은 2003년 8월 개원해 삼매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09년 4월 유료로 진행된 삼매 프로그램을 무료화하고 7월 종교법원으로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았다.

원음종은 빠른 시일내에 부산지원 개원을 시작으로 서울·유림 지원 개원을 통해 본격적인 대중교화에 나선 예정이다. 070-7779-7711

조동섭 기자 · 순법천 대구지사장

# 동구청 위문품 전달 팔공산 파계사



법광 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은 대구지역 소외계층에게 자비행을 펼쳤다.

팔공산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은 2월 8일 대구 동구청을 찾아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해달라며 국수 200박스(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법광 스님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웃과 선명정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경인년 새해를 맞아 양비의 새 희망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에 국수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큰 꿈과 희망을 키우길”

## 신흥사, 지역학생에 장학금 전달



신흥사 스님이 사하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속초 신흥사가 지역 19개 초·중·고교 졸업생 2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신흥사(주지 우송)는 2월 1일 사하초내 설악초교 졸업생 9명에게 교복과 가방을 선물한 것을 시작으로, 10·11일 속초 지역 초·중·고교 졸업생에게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설악초교 졸업생에게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도시 어린이들 못지않은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혜철 스님, 라디오 진행

## BBS청주방송서 매주 월~금요일 방송



혜철 스님은 ‘무명을 밝히고’에서 충청지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있다.

BBS청주불교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인 ‘무명을 밝히고’를 혜철 스님(육천 대성사 주지)이 진행한다. BBS청주불교방송(사장 현우)은 최근 “혜철 스님을 ‘무명을 밝히고’ 새 진행자로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을 선임해 9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FM라디오 96.7Mhz로 방송되는 청주불교방송은 충청권 유일의 불교방송으로 21시간 방송된다. 조동섭 기자

# “사회복지계의 숙원 차례로 풀어갈 것”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 선출된 공상길 관장

서울시 사회복지관 정책을 관리·보조하는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제 11대 협회장으로 신길종협사회복지관 공상길 관장(사진)이 선출됐다. 공상길 관장(법명 심원·사진)은 2월 9일 협회장 당선 직후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인 공상길 회장 “앞으로 협회에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 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활성화와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

우 관련 문제 등 사회복지계의 숙원 과제들을 차례로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 회장은 “불교는 고려시대부터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일해왔다”며 “이러한 정신을 잘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공 회장 선출에 대해 “사회복지관 협회장에 불교계가 최초로 선출된 것은 발전하는 불교복지의 현재 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 인천불교계 행복도시 위해 합심



1월 27일 봉행된 인천불교총연합회 신년대례법회.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1월 27일 인천 파라디스호텔에서 명예회장 해운 스님과총종일 인천시 부시장, 윤상현 신학용 국회의원,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불교 신년대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해동불교법원대학 어산단의 상주관공작법이 펼쳐졌으며 법회에서는 발원론 낭독과 전통자법 등이 진행돼 인천지역의 화합 및 발전을 기원했다. 대은 스님은 이날 대회사로 통해 “법적으로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불교계가 합심하자. 또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론,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목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 108염주 목주
크기: 8mm×10mm×12mm 55,000원	크기: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목목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동법 053-12-125418 강현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열안,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차신 ●오심, 구역, 소화불량,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시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약형 의료기기 05-0626로 인증

하리엔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엔 편안하게 하리엔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음(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동법 053-12-125418 강현영 / 일일금공출도 상담 합니다.